책을 내면서

태고적부터 오늘까지 지구상에는 각이한 종류의 수많은 나무들이 인류와 함께 생존해오고있다.

그중에는 자라는 속도와 아름다움으로 이름난 나무들도 많고 열매와 향기, 용도 등으로 유명한 나무들도 많으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희귀한 나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조선의 소나무처럼 사람들의 마음속깊이에까지 뿌리내리고 사상정신력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빛내여지는 나무는 어디에도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소나무는 조선의 기상입니다.》

예로부터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살아오면서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만방에 떨쳐온 우리 겨레는 모진 광풍과 눈바람, 찬서리속에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으며 천년암벽에도 뿌리내리고 푸른 하늘 우러러 사시장철 굳세게 서있는 소나무를 우리 민족의 강의한 기상과 억척불변의 신념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우리 인민은 남산의 푸른 소나무와도 같은 억센 기상으로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고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의 길을 걸어왔으며 오늘은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력사를 창조하고있다.

오늘 소나무는 조선의 국수로 그 의미를 새롭게 새기며 나날이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장한 모습과 더불어 온 민족의 사랑속에 더욱 푸르러 설레이고있다.

겨레가 사랑해온 소나무

소나무가 우리 나라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수천년전이라고 전해지고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소나무의 기상에 끌려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 소나무를 많이 심고 정성껏 가꾸며 사랑하여왔다.

우리 나라의 명승고적들을 보면 거의가 다 소나무가 무성한 곳에 자리잡고있다.

1530년에 편찬된 전국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강원도 강릉의 명승으로 알려진 《한송정》(정자이름)에 대해 《한송정은 부(강릉부)의 동쪽 15리에 위치해있는데 동쪽으로는 큰 바다(동해)에 림하고있고 소나무가 울창하다. 루정(한송정)옆에는 다천(차샘물)과 돌가마, 돌메돌(돌절구)이 있는데 신선

들이 놀러 다니던 곳이다.》라고 기록되여있다. 그런가 하면 모란봉에 빽빽이 들어선 을밀대의 소나무들은 임진조국전쟁시기 우리 군대로 위장되여 왜적을 쳐부셨다는 전설을 전해오고 있다.

이 땅에 소나무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것은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우리 나라의 산, 반도, 만, 갑, 시, 군, 리, 읍, 면을 비롯하여 소나무를 의미하는 《송》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은 사실이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그 대표적인 례를 꼽아보자.

송악산(개성), 송현산(황해남도 과일군 장암리), 송전반도(강원도 문천시), 송전만(원산만 북부), 송도갑(함경남도 신포시), 송림시(황해북도), 송원군(자강도), 송산리(함경북도 은덕군), 송봉리(량강도 보천군), 송포리(강원도 평강군), 청송읍(경상북도 청송군), 송라면(경상북도 포항시), 송산면(충청남도 당진군) …

주목을 끄는것은 우리 선조들이 왜 이 땅에 자라는 수많은 나무들가운데서 유독 소나무를 자기들의 생활과 그리도 가까이 하였는가 하는것이다.

소나무의 어원과 종류, 그 생리적 및 생태적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에 대한 의문이 스스로 풀린다.

소나무는 《솔》과 《나무》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로서 여기서 《솔》은 《상(上)》, 《고(高)》, 《원(元)》의 뜻을 담고있다. 하여 처음에는 소나무가 나무들가운데서 우두머리라는 의미에서 《수리》라고 불리우다가 그것이 《술》로 변하고 그 다음에는 《솔》로 변하여 불리워졌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옛적부터 소나무를 나무중의 으뜸가는 나무로 여겨왔다는것을 보여준다.

소나무(Pinus densiflora)는 소나무과의 사

철푸른 바늘잎키나무이다.

소나무는 그 특징에 따라 여러 종류로 갈라지는데 부르는 이름도 각이하다.

흔히 바다가에 자라면서 껍질은 검고 새싹은 흰색을 띠며 거센 잎을 가진 두잎소나무는 곰솔, 나무껍질은 흰색이고 끝이 뾰족하고 풀색을 띤 잎을 가진 세잎소나무는 백송, 줄기가 붉은색을 띠는 소나무는 적송, 살아있는 소나무나 벤지 얼마 안되여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소나무는 생솔(생소나무), 어린 소나무는 동솔, 사철 잎이 푸르싱싱한 잔솔나무는 청솔(청송), 늙은 소나무는 로송, 크게 자라지 못하고 마디가 많은 소나무는 보드기솔(보득솔), 키가 작고 몽톡한 소나무는 몽당솔, 다보록하게 가지가 퍼진 잔솔은 다박솔, 긴 가지가 축축 늘어진 크고 푸르싱싱한 소나무는 락락장송이라고 부른다.

소나무는 우리 나라 북부의 높은 산지대를 제외한 해발 800m높이 아래의 넓은 지역에서 자라는데 높이는 20~40m정도이고 직경은 60㎝정도이며 줄기는 보통 구불구불하지만 산림속에서 자라는 나무는 비교적 곧다.

줄기껍질은 붉은밤색이거나 검은밤색이며 바늘잎은 보통 2개씩 짧은 가지에 묶음으로 나오는데 일부 어린 나무와 잘 자란 나무에서는 3개씩 묶음으로 나온다. 잎의 길이는 보통 7~12㎝이며 14㎝ 되는것도 있다. 암꽃과 수꽃이 한나무에서 햇가지에 피는데 암꽃은 가지끝에 보통 2~3개씩 피고 수꽃은 그밑에 핀다. 수꽃은 길둥근모양이며 길이 6~10㎜, 직경 3㎜정도이다. 암꽃은 닭알모양 또는 길둥근모양이고 길이 5~7㎜, 직경 3~3.5㎜이며 붉은자주색을 띤다. 또한 솔방울은 닭알모양이며 길이 3~5㎝, 직경 2.7~3.3㎝이다. 익으

면 비늘이 벌어지면서 씨가 떨어진다.

꽃은 5월 중순에 피여 이듬해 9월에 씨가 여문다.

번식은 씨로 하며 10년정도 자라면 꽃이 피고 솔방울이 달린다.

소나무는 토양에 대한 요구성이 높지 않으며 건땅, 메마른 땅, 들판, 모래땅, 바다가 지어 바위우에서도 자란다.

그 어떤 설한풍도 꿋꿋이 이겨내고 늙어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으며 바위틈이나 절벽에 뿌리 내리여도 죽지 않고 자라는 강한 생활력을 가진 나무, 토양이 아무리 메말라도 처음 뿌리 내린 땅에서 자연의 온갖 풍상고초를 다 이겨내며 꿋꿋이 성장하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있는 나무가 바로 조선의 소나무이다.

소나무의 이와 같은 강인한 성질은 대대로 한강토에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

조하며 외래침략자들을 쳐물리치면서 굴함없이 살아온 단일민족인 우리 민족의 억센 기개를 그대로 닮고있다.

하기에 우리 겨레는 오래전부터 소나무를 조선민족의 강의한 슬기와 의지를 과시하는 민족의 기상으로 긍지스럽게 여기며 남달리 사랑하여왔다.

그를 실증해주는 자료는 많다.

우리 선조들은 소나무를 자연풍경의 전형으로 내세우고 소나무를 즐겨 그렸으며 소나무에 대한 많은 시들을 지어 읊었다.

세나라시기 이름난 화가였던 솔거가 황룡사벽에 그린 소나무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황룡사는 그 규모와 크기에 있어서 당시로서는 손꼽히는 사찰이였다.

이곳에 있던 중들은 자기들의 사찰을 더욱 화려하게 하고싶은 마음에서 화가로 유명한 솔

거에게 벽화를 그려줄것을 요청하였다. 청탁을 받은 솔거는 자기가 련마해온 화법과 재능을 다 발휘하여 장구한 세월에 부대끼며 늙어온 소나무를 생동하게 그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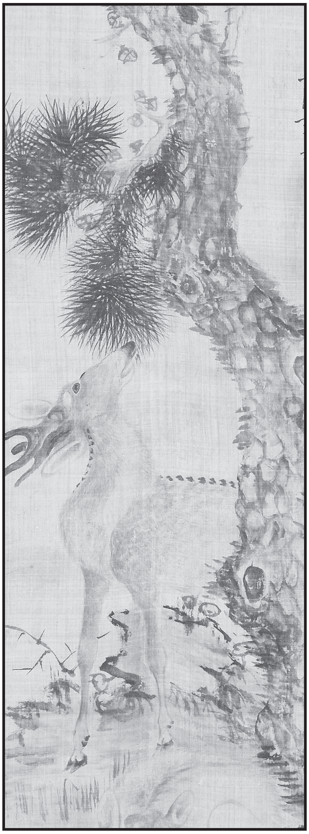
거북등같이 터져있는 껍질의 묘사는 수백년동안 자연풍파를 꿋꿋이 이겨내며 자라온 로송의 름름한 기상을 그대로 내뿜고있었으며 이슬을 머금은듯이 빛을 뿌리는 새파란 솔잎은 금시라도 향긋한 솔향기를 풍겨주는듯싶었다. 솔거가 그린 소나무가 얼마나 생동하였던지 날아가던 까마귀와 수리개, 제비와 참새들이 거기에 앉으려다가는 벽에 부딪쳐 떨어지군 하였다.

그 소문이 널리 퍼지는 바람에 솔거의 그림솜씨는 더욱 명성을 떨치게 되였으며 황룡사도 더욱 유명해지게 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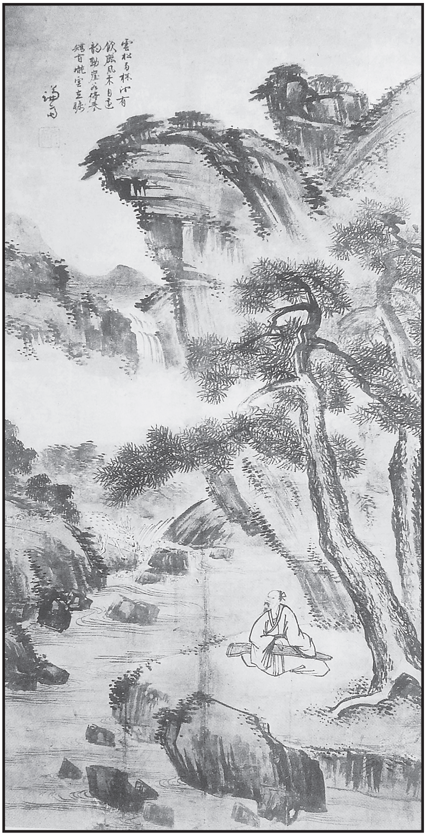
노비로부터 명화가가 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화가 리상좌도 《달밤에 소나무밑을 거닐며》

(송하보월도)라는 자기의 그림에서 깎아지르는 듯 한 가파로운 벼랑우에서 모진 비바람에 시달리면서도 바위틈에 든든히 뿌리를 박고 거연히 서있는 소나무를 신통하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강의한 의지와 억센 기상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솔거와 리상좌의 그림뿐아니라 리징의 금니화 《독수리》와 《사슴》, 김득신의 《호랑이》, 장승업의 《솔과 사슴》, 정선의 풍경화 《물소리를 들으며》, 《너럭바위》, 《가야금 타는 로인》, 김두량의 풍속화 《4계절》, 심사정의 풍경화 《여름의 산막》, 《신선에 대한 이야기》, 리인문의 풍경화 《루각에 모여》 등 많은 그림들에서도 우리 민족의 굳센 지조와 절개를 훌륭히 형상한 소나무들을 찾아볼수 있다.



솔과 사슴
(장승업, 1843-1897)



가야금 타는 로인
(정선, 1676-1759)



신선에 대한 이야기
(심사정, 1707-1769)



루각에 모여
(리인문, 1745-1821)

16세기말~17세기초에 창작된 《송학자수》라는 조선수도 예로부터 늙지 않고 오래 살려는 념원의 상징으로 되여온 소나무와 학, 참대, 불로초, 바위, 물 등으로 가을의 풍치를 형상하였다.

고구려벽화무덤인 진파리제1호무덤과 제4호무덤, 안악제1호무덤과 룡산리1호, 4호무덤의 벽화들에도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도 꿋꿋이 서있는 소나무의 모습이 그려져있다.

우리 선조들은 소나무에 대한 시도 많이 지어 읊었다.

어려서부터 시를 잘 지어 《신동》으로 소문났던 김시습(조선봉건왕조시기 문인, 철학자)은 3살때 벌써 복숭아꽃 붉고 버들잎 푸른/춘삼월도 저물었네/솔잎에 맺힌 이슬은/푸른 바늘에 꿰인 구슬인양 하여라라는 소나무에 대한 시를 지어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으며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풍자시인 김삿갓(본

명 병연)은 송송백백암암회(소나무 잣나무 바위들이 뒤섞인 사이를 돌아보니)/산산수수처처기(산은 산마다 물은 물마다 곳곳이 기이한것뿐이구나)라는 시를 읊었다.

그런가 하면 조선봉건왕조때 시인 박인로는 시 《솔》에서 못우에 정정히 선/백길 소나무여/겨울날 해는 져도/하늘 가득 푸르구나/사시절 변함없이/굳은 절개 지키나니/찬서리 설한풍쯤/두려울리 있으랴라고 눈바람, 찬서리를 굳세게 이겨내는 소나무의 푸른 기상을 노래했으며 임진조국전쟁시기 이름난 의병장이였던 사명당은 《푸른 소나무》라는 시에서 소나무 푸르구나 초목의 군자로다/…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변함이 없구나/겨울, 여름 항상 푸르구나라고 소나무를 노래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소나무의 기상에 매혹되여 소나무를 자기들의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면서 깊은 인연을 맺고 살아왔다.

우리 선조들은 나무를 심어도 소나무를 심고 잘 가꾸는것을 하나의 풍속으로 여겨왔으며 소나무로 집을 짓고 살아오면서 소나무를 해, 산, 물, 돌, 구름, 불로초, 거부기, 학, 사슴 등과 함께 십장생의 하나로 삼아왔다.

새 생명이 태여나면 금줄에 푸른 생솔가지를 꽂아 대문에 내걸어 출생을 알리였고 산모가 먹을 첫 국밥도 마른 솔잎이나 솔가지를 태워 끓였다. 아이가 태여난지 사흘째인 삼날이나 이레째인 칠날에는 청솔잎으로 집안에 정화수를 뿌리면서 산모의 건강과 새 생명의 장수를 빌었다.

아이들은 솔숲동산에서 솔방울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으며 성년이 되면 초례상에 소나무를 꽂고 정절과 사랑을 맹세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솔잎으로는 죽과 술, 차를, 송화가루로는 과자를 만들었고 송이버섯, 복령(솔뿌리혹)으로 약을 만들어 리용하였으며

설명절을 비롯한 민속명절들에는 솔잎을 깔고 쪄낸 송편을 먹었다. 뿐만아니라 광솔로 방을 밝히고 솔가지를 태워 때식을 치르기도 하였으며 소나무로 지은 집에서 태여나 솔잎타는 연기를 맡으며 한생을 살다가 죽으면 소나무관에 놓여 소나무가 우거진 산속에 묻히였다.

이런 리유로 하여 우리 선조들은 《소나무에서 나서 소나무속에서 살다가 소나무속에 죽는다.》라는 말을 많이 써왔다.

이러한 민족생활풍속을 반영하여 송죽의 절개는 엄동설한에야 안다, 송진덩이에 불붙듯 한다, 소나무가 말라죽으면 잣나무가 슬퍼한다,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를 비롯하여 소나무와 관련한 속담들도 많이 전해져오고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먼 옛날부터 소나무와 깊은 인연을 맺고 살아오면서 소나무를 조선민족의 기상으로 내세워왔다.

신념의 상징—소나무

맵짠 눈바람과 찬서리속에서도 푸른 기상을 과시하며 새봄을 맞이하는 소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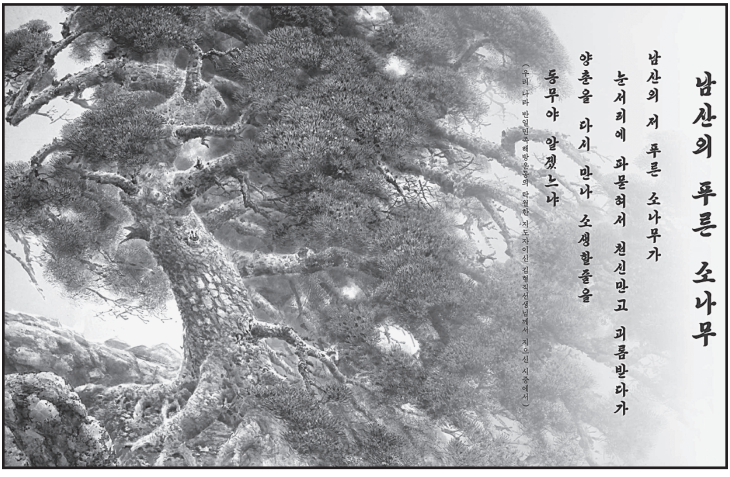
그 소나무는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한없이 고귀한 생애와 더불어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신념의 상징으로 더욱 억세게 뿌리 내리게 되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찌기 지원의 큰뜻을 품으시고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시였다.

1917년 가을 100여명의 조선국민회 회원들과 함께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여 교형리들의 야수적고문과 온갖 회유기만책동을 꿋꿋이 이겨내시며 굴함없이 싸우신 선생님께서는 다음해 가을 감옥에서 나오시여서도 옥중에서 쇠약해

지신 몸을 추세울 사이도 없이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또다시 투쟁의 길에 나서시였다.

그때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몸이 찢겨 가루가 되여도 대를 이어가며 굴함없이 싸워 민족재생의 새봄을 안아오시려는 자신의 굳은 맹세를 눈속에서도 푸른 빛을 잃지 않고 꿋꿋이 서있는 소나무에 담아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지으시였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롬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여도
광복의 한길에서 굴함없을줄
동포야 믿어다오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삼천리에
양춘을 찾아올제 독립만세를
조선아 불러다오

온 민족이 소나무와 같은 억센 기상과 의지를 지니고 떨쳐일어나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빼앗긴 나라를 기어이 찾자는 뜨거운 애국의 호소, 소나무와 같은 푸르름을 잃지 않고 결심품고 나선 피어린 싸움의 길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며 온몸이 찢기고찢겨 가루되여도 고난과 시련의 그 길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려는 혁명가의 결연한 의지와 신념이 그대로 메아리쳐오는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신 불굴의 혁명신념과 열렬한 반일애국사상, 조선의 독립에 대한 원대한 뜻이 담겨져있고 일제의 폭압이 아무리 간악하다 할지라도 혁명가는 자기의 절개를 절대로 굽힐수 없으며 조선의 독립은 우리 민족자신의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된다는 철의 진리, 반드시 독립되고야말 조선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는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그 시에 담겨진 숭고한 애국의 뜻을 심장깊이 새기시고 20성상의 항일혈전으로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끝끝내 이룩하시여 이 땅우에 존엄높은 자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시였고 우리 민족의 슬기와 의지, 억센 기상이 어려있는 소나무를 혁명가들의 신념의 상징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에 수종이 좋은 소나무들을 많이 심고 애호관리하도록 하시여 소나무가 나라의 재부로서만이 아니라 신념의 상징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시였다.

그 하많은 실례들중에는 송도원의 소나무가 전하는 전설같은 이야기도 있다.

해방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우리 인민

에게 더 좋은 문화휴식터를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송도원에 소나무를 많이 심고 잘 보호관리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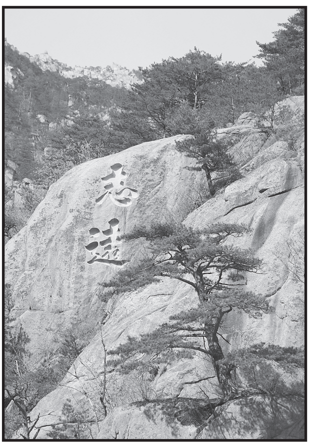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가렬한 전쟁시기에도 송도원에 있는 소나무들을 찍지 않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전후에는 송도원의 소나무들은 나라의 보배라고 하시면서 송도원의 경치좋은 곳에 휴양소를 건설하도록 하시였으며 몸소 큰 소나무들이 우거진 바다가에 아이들의 야영소터전까지 잡아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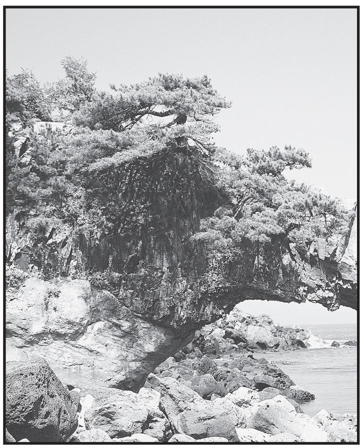
그후에도 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송도원의 로송들을 잘 보호관리하여야 한다고, 송도원에 소나무들을 많이 심어 소나무밭면적을 계속 확장하여야 한다고, 높이 자라는것도 심고 옆으로 퍼지는것도 심으며 일부 지역에는 다박솔도 심어야 한다고 하시며 송충피해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

였다.

온 나라에 소나무숲이 더욱 푸르러 설레이게 하기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조국애의 자욱은 동해안의 외진 포구인 염분진(당시), 함경남도 리원군의 송정리, 황해남도의 구월산, 동명왕릉을 비롯하여 이 땅에서 자라는 소나무들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의 기상인 소나무를 혁명가들의 신념의 상징으로 내세워주시였다.







혁명가의 신념을 상징하는 소나무

1985년 10월당시 새로 개건확장된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렬사릉에는 겨울철에도 나무잎이 푸르러있어야 하므로 소나무와 같이 사철푸른 나무들을 심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와보게 되면 자기들도 혁명렬사들처럼 난관을 극복하면서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보람있게 살아야 하겠다, 사람이 세상에 태여났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죽으면 무

슨 소용이 있겠는가고 생각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용감히 싸울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오늘도 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없이 사랑하신 노래, 조선의 기상을 소나무에 비유하여 형상한 노래 《너를 보며 생각하네》를 들을 때마다 불굴의 신념을 지니시고 한평생을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다 바치신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본다.

1. 무성한 잎새우에 흰눈을 떠이고서
   푸르러 설레이는 한그루 소나무여
   세상이 변한대도 제모습 잃지 않을
   아 내 조국의 장한 모습 너를 보며
   생각하네

2. 잎이 진 수림속에 앞날을 그려주며

희망의 등대처럼 푸르른 소나무여
드넓은 이 세상이 모두다 우러르는
아 내 조국의 장한 모습 너를 보며
생각하네

3. 태양이 안기여준 푸르른 그 기상을
꿋꿋이 보여주는 억세인 소나무여
우리 당 손길아래 천만년 길이 빛날
아 내 조국의 장한 모습 너를 보며
생각하네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그야말로 푸르청청한 소나무의 억센 기상과도 같은 강인담대한 생애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과 북침전쟁소동, 경제봉쇄책동,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우리 조국이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해야 했던 그 준엄한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원의 높은 뜻 어린 소나무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는 불변의 신념으로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실 첫걸음도 눈덮인 다박솔초소에서 떼시면서 비범한 령도로 공화국을 적대세력들이 감히 범접할수 없고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다칠수 없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으며 불굴의 의지와 신념으로 조국수호의 성스러운 령도를 펼쳐 조선을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그 강인한 신념은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천년바위에도 뿌리를 박고 꿋꿋이 서있는 소나무와 같은 견결한 혁명신념을 심어주어 그들모두를 그 어

면 천지풍파도 웃으면서 헤쳐갈수 있는 신념의 강자들로 자라나게 하였다.

확고부동한 통일신념을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헌신에 의해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발표되여 이 땅우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정녕 백두산절세위인들은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에게 푸른 소나무의 기상과도 같은 굳센 혁명신념, 애국의 신념을 새겨준 위대한 신념의 화신들이시였다.

하기에 오늘 인민들은 선군조선의 장한 모습과 더불어 억세게 서있는 소나무를 신념의 상징으로 간직하며 노래 《너를 보며 생각하네》를 널리 부르고있다.

푸르러 설레이는 소나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속에 소나무는 오늘 조선의 국수로 더욱 푸르러 설레이고있다.

푸른 하늘엔 국조인 참매가 날아예고 땅우엔 국화인 목란꽃이 만발하고 국수인 소나무가 사시장철 푸른빛을 잃지 않고 설레이는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약동하는 젊음으로 나날이 비약하고있는 공화국의 기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더없이 사랑하시며 그 시에서 제일 가슴을 울리는것은 3련이라고 하시면서 시의 구절구절을 되새겨볼수록 불굴의 의지와 억세인 신념이 가슴뜨겁

게 어려온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불굴의 신념으로 온넋을 불태우시며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최후승리의 길을 억세게 이어가고 계신다.

돌이켜보면 또다시 대국상을 당한 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침략과 압박공세는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어리석게도 그 무슨 《붕괴》와 《급변사태》를 부르짖으며 공화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이리떼처럼 덤벼들었다.

그것도 수많은 핵전쟁장비들과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끌어다 놓고 하늘과 땅, 바다에서 화약내짙은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다 못해 악랄한 경제봉쇄와 추악한 《인권》모략소동까지 벌려놓았다.

하여 제2의 조선전쟁은 기정사실이라는 여론

이 란무하는 속에 세계의 이목은 공화국으로 모아지군 하였다.

눈이 와야 솔이 푸른줄 안다고 그때마다 세계는 백두산장군의 신념의 선언앞에 탄복을 금치 못했다.

— 적진을 아예 벌초해버리라.

—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리라.

— 미제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률, 쓰디쓴 참패를 우리와의 전쟁을 통해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하라.

—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도전해나서는자들은 그가 누구든 최후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다.

세계가 놀란것은 이뿐이 아니다.

공화국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

기를 세계가 보란듯이 창공높이 쏴올리였고 련이어 제3차 지하핵시험에서도 성공하였으며 병진로선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갔다.

공화국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푸르름만을 떨치는 소나무처럼 자기의 굳은 신념, 억세인 기상을 변함없이 과시하였다.

미국의 CNN방송은 조선은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통하여 역시 조선민족은 간단치 않은 민족이며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존재라는것을 다시한번 시위하였다, 조선은 지구의 그 어느곳이나 강력한 미싸일로 타격할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보도하였다.

공화국의 담대한 그 기상에 적대세력들은 기절초풍하였다.

헤리티지재단, 브루킹스연구소, 미국제전략문제연구소를 비롯한 미국의 두뇌집단들은 《**김정은**정권이 들어선 후 기존의 행동원칙은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북을 대해야 한다.》, 《북의 핵보유를 막겠다는 목표는 실패했다. 북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보복적핵타격능력을 가일층 확보하고있다.》, 《북의 이동식대륙간탄도미싸일과 잠수함발사미싸일은 언제 어디서 출몰하는지 알수 없어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 《북의 핵과 미싸일, 싸이버전능력이 조선반도는 물론 미국본토에도 실질적위협이 되고있다. 이것은 미군사기지들과 미국령토를 취약하게 만든다.》, 《시간은 미국이나 남조선편이 아니다.》고 하면서 아우성쳤다.

한편 세인은 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뿌려놓으신 소중한 씨앗들이 어떻게 만복의 열매로 주렁지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어떻게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는가를 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공화국은 모든 부문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경이적사변들을 안아오고있다.

릉라인민유원지와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창전거리와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현대적인 애육원과 육아원, 새 세기 본보기 표준공장들이 도처에 일떠섰다.

곳곳에 새롭게 꾸려진 공원들에서는 체육열풍으로 떠들썩하고 강계의 인풍원, 압록강반의 호하원과 같은 문명의 새 집들에서는 한겨울에도 여름날의 시원한 해수욕맛을 한껏 즐기는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하늘 가득 터져오르고 《바다만풍가》의 노래가 울려나오는 희한한 풍경이 펼쳐지고있다.

지난해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라틴아메리카의 어느 한 나라 시장은 《이처럼 아름다운 나라, 진실한 인민을 어떻게 외곡할수 있는가.

내가 귀국을 방문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왜 그토록 나의 앞길을 막았는지 이제는 알만하다.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모든것은 나에게 그들이 주겠다고 한 몇푼의 돈과 결코 바꿀수 없는 귀중한 보물이다.》라고 하였다.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과연 어떤 신념과 정신을 지니고있기에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놀라운 천지개벽을 안아올수 있는가 하는것이 오늘 세인의 공통된 의문으로 되고있다.

그들에게 이 나라 그 어디에나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리해할수 있다고 권고하고싶다.

성스런 혁명의 길 끝까지 가리라
붉은기 우러러 우리 심장 스스로
 택한 인생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눈속에 묻힌대도 푸른빛 잃지 않는
소나무 소나무처럼
…

지난해 1월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시여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 위하여》라고 씌여진 구호문헌을 보시고 항일혁명선렬들의 신념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의 빛나는 귀감으로 된다고 하시며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굳센 혁명적신념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누리를 붉게 물들이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가신다.

눈속에 묻힌대도 푸른빛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백두에서 개

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시려는것이 바로 그이께서 간직하신 필승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의 칼바람이야말로 혁명적신념을 더 굳게 벼려주고 모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이고 원쑤들에게는 돌풍이 되여 철추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라고, 우리는 최후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보폭도 리상도 결심도 그이와 하나되여 천리라도 만리라도 끝까지 따라갈 굳은 신념을 지닌 공화국의 인민들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가리라 백두산으로》라는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강성국가를 향하여 기세드높이 앞으로 나아가고있다.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고있는 공화국의 천만군민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만군민을 산림복구전투에로 한사람같이 불러일으키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지난해 11월 중앙양묘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이곳을 찾으시여 중앙양묘장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니 푸른 숲 설레일 조국의 래일을 보는것만 같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장군님의 영상이 안겨온다

고, 우리 장군님은 조국산천을 자신의 살점처럼 아끼고 사랑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뜨겁게 되뇌이시면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모진 광풍에도 끄덕없이 륭성번영하는 공화국의 억센 기상을 그대로 보여주며 꿋꿋이 서있는 푸른 소나무의 모습이 언제나 소중히 간직되여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의 정화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산림을 더 푸르싱싱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온 나라가 떨쳐나 나무를 심고심어 이 땅의 산야에는 혁명적신념으로 만난을 이겨내며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의 억센 기상이 비낀 푸르른 소나무숲이 더욱 울창해지고있다.


어머니조국을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자!





소나무를 심고 가꾸는 공화국의 인민들

무성한 잎새를 펼치며 더욱더 푸르러가는 울창한 소나무숲를 보며 사람들은 제국주의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쳐갈기면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락관하고있다.

우리 겨레는 소나무와 같이 굳세고 변함없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선군조선의 장한 기상을 보여주는 소나무는 영원히 푸르러 설레일것이다.

조선의 기상—푸른 소나무

집 필　원 영 수
장 정　김 윤 일
교 정　김 철 준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4(2015)년 5월 28일
발 행　주체104(2015)년 5월 30일

ㄱ—1275ㄷ